

# 윤석헌, 금융개혁... 김기식보다 강한파고 될까

### “지금부터 금융사와 전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침없이 표현 “모든 대출이 약탈적 대출아냐” 김 전 원장과 이견 드러내 삼바사태, 시장혼란은 사과하면서도 “원안고수” 강조

금융개혁 호랑이로 불리며 금융감독원 수장에 오른 윤석헌 원장이 취임 두달여만에 초강력 금융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기식 전 원장과 달리 취임 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윤 원장이 드디어 입을 연 만큼, 금융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 기대가 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감독 역량강화 등 전 분야에 핵심과제를 두루 제시했다.

특히 금융업계에 자율성을 주기보다 감독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대출금리 조작이나 금융사 채용비리 등 산적한 금융사의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감독·검사를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원장은 그동안 보여온 태도와 달리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식 전 원장과 이견이 드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둘러싼 금융위에 대한 생각 등도 과감히 밝혔다.

심지어 이날 브리핑 중에 윤 원장은 “지금부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

다”와 같이 취임이후 침묵했던 행보와 달리 과감한 발언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김 전 원장과 이견도 과감히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원장이 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대해 “약탈적 대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물론 약탈적 대출이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대출이 다 약탈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민감할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에 대해서도 잘못은 인정하는 한편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부담스럽다”면서도 최근 금융위에서 조치된 보완을 요구한 것

을 거절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다. 하지만 원안고수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금융위에 대해서도 명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 요구에 대해”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다. 그는 “절차를 통틀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며 “다만 그것이 표현대로 좀 더 정제된 절차를 따랐다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었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대부분 이슈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강화 방침을 보였다.

삼바 논란으로 제기된 분식회계 문제는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직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에도 보험업체와 의견조율해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출금리 조작 문제를 막기 위해 윤

한반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거진 KIKO사태 관련 민원도 종자부를 짚을 것을 약속했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검사제도 부활한다.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검사에 불입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금융사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해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종합검사가 부활하면 경우에 따라 살생부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금융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시행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의 연이은 나마 끝에 오른 만큼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김 전 원장과 달리 말을 아꼈다. 그동안 공식석상을 오고가며 기자들과 마주칠 때마다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선에 그쳤다.

침묵해왔던 윤 원장이 드디어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주 증권사(BB)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와의 스킨십을 늘리며 본격 개혁추진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호응 얻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순창군지부(지부장 한재현) 농촌현장지원단은 10일(순창군 구림면) 양모(86) 할아버지댁에 노후된 방문 교체와 방 사이 틈으로 불어오는 외풍을 막는 작업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양모 할아버지가 자신의 불편 상황을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상담 접수 됐으며, 이날 전북지역본부, 순창군지부, 농촌사랑방국민운동본부, 구림농협(조합장 이두용) 등 지역 수리 업체와 자원 봉사자 참여로 진행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방국민운동본부\*가 주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각종 불편한 생활을 해소해 주는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다.

구림농협(조합장 이두용)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농촌 어르신들께 큰 기쁨이 된다”며 “농업인 행복 콜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H농협카드, 'SOHO 올바른 OIL카드' 출시

전국 모든 주유소·LPG충전소 7% 할인  
4대보험 등 주요 사업경비 0.5% 할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주유 특화 상품인 'SOHO 올바른 OIL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SOHO 올바른 OIL카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올바른 주유혜택'이란 의미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 주유소(LPG충전소 포함) 7% 할인 및 주요 사업경비인 4대보험, 손해보험,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알뜰폰 제외)에서 각 0.5% 할인 혜택을 제공. 접대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표적인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드라이버' 자동결제 이용시 10% 할인 가능하다.

또한, 차량(국산차, 수입차, 중고차) 구매 시 연 1회 최대 30만원을 할인

/김영태기자

### 전북은행, 제10회 메세나콘서트 '어린이뮤지컬-슈퍼맨처럼'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공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10회 메세나콘서트 '어린이뮤지컬-슈퍼맨처럼' 공연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도내 아동 및 가족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지난 11년부터 매년 메세나콘서트를 실시하고 있다.

메세나콘서트 공연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정호와 추구를 좋아하는 태민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어가며 친구가 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면 재미는 물론 교육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공연은 2일~3일 오후 2시 5시, 4일 오전11시 오후3시 등 총6회 실시, 6세 이상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 관람 가능하다. 관람신청은 오는 7월11일부터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전 영업점을 통하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250-7988/7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기자

### 과기정통부, 이달 말까지 IoT 주파수 수요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11일부터 31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는 무선네트워크의 핵심자원으로, 향후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확대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요조사는 사물인터넷용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300MHz 대역 및 900MHz 대역 등 총 17.7MHz 폭 중 선호하는 주파수 대역, 기술방식, 서비스 유형 등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산업체 등은 설문양식에 주파수 수요 등을 작성해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 정읍농기센터, 블랙베리 판로 확보 나서

정읍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블랙베리(매이플)의 수요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블랙베리 수확 체험 운영, TV 등의 매체를 활용해 판로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블랙베리는 풍부한 비료와 섬유질이 많은 과일로 지방을

분해하는 카테킨 성분을 많이 함유해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여성들이 선호한다. 또 블랙베리의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리그난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젠과 유사한 여성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미국인이 섭취

하는 100가지 식재료 중 블랙베리가 항산화 성분 1위 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정읍시 블랙베리 매이플 품종은 기존 블랙베리에 비해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으며, 간 기능 보호 성분인 C3G가 기존 블랙베리 브이쓰리의 2.3배, 오디의 약 8배, 블루베리의 1.2배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